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5 권 · 제 2 호 · 1987

아파트 붙박이 가구 개조실태 조사연구

The Remodeling Behavior on the Apartment Built-In Furniture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연구조교 : 이 숙 영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Reserch Assistant : Sook Young Lee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교 수 : 박 영 순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 Young Soon Park

목 차

I. 서 론
II. 문헌고찰
1. 아파트 변천과정을 통해서 본 붙박이가구
2. 주거의 적응 및 조절행위
III. 연구방법
IV. 조사결과 및 논의
V.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modeling behavior on the apartment built-in furnitu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3 residents in Seoul area, living in apartments equipped with built-in furnitur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It was found out that 62-75% of those surveyed did not remodel their built-in furniture and 25-39% remodeled it. The major reasons for remodeling are the inconvenience in storing household items, lack of storage space and dissatisfaction of the design and color.

2) More than 80% of the apartment residents surveyed recognizes the necessity of the built-in furnitures, which were equipped already, in living room, kitchen, bathroom and the entrance area. A strong need is also indicated for the additional built-in furnitures in each bedroom, multi-service room and veranda.

3) This survey also indicates that 63-73% shows no intention of remodeling their built-in furnitures. On the other hand, 27-37% of those surveyed indicates their desire and plan to remodel them.

I. 서 론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간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더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집중현상 및 가족구성의 변화에 의해 주택의 양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아파트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비의 절감등으로 양적 주거환경조성에는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거주자의 요구와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단조롭고 획일화된 주거공간(진병훈 1983; 강병기 1986; 이언구 1986)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획일성과 같은 특성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거환경의 기능면에서 볼 때 불합리성의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평가수준이 높아져감에 따라 획일화된 환경에서 탈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일례로서 아파트 주거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붙박이 가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량생산에서 오는 획일성으로 소유욕이 상실되며,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생활변화에 따른 환경개선이 어렵다(김효손 1987; 김규태 1987)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붙박이 가구에 대한 거주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붙박이 가구가 거주자의 적정수준(adaptation level)에 일치할 경우에는 만족감을 주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거주자의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기도 한다. 혹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대수준을 낮추면서 그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붙박이 가구를 새로 구입하거나 개조할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나 건축구조의 약화가 초래되며(주종원 1986), 만족스럽지 않은 붙박이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는 획일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붙박이 가구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현대 주거환경에 있어서 공간사용의 효율성, 이동생활의 편리성등의 유익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붙박이 가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계획될 보다 나은 아파트 주거환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 의의가 있다.

II. 문헌고찰

1. 아파트 변천과정을 통해서 본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구란 건축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된 가구를 말한다[1].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 붙박이 수납가구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안방에서 수납공간 역할을 해왔던 "다락" 이다. 이 다락은 1960년대까지도 재래식 부엌구조를 가진 단독주택에서는 물품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아파트 붙박이 가구의 형태는 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로마시대에 벽안쪽을 파서 장식물을 놓을 수 있게 만든 벽감(niche)에서 유래되었다(Whiton 1974). 건축형태가 변함에 따라 벽감의 형태와 기능도 변화되어 수납공간의 기능을 갖추면서 침대, 찬장(cupboard), 장(chest)에 이르는 가구들이 붙박이 형태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특히

주1) Faulkner, Ray & Sarah Faulkner, *Inside Today's Home.* Holt. Rinhart Winston, 1975, p 386

18세기의 예를 들면 미국의 세이커교인(Shaker)들은 대부분의 가구를 붙박이로 만들어 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Frankel 1977).

외국의 붙박이 가구가 우리의 주거공간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식 주택의 도입으로 반침이 수납공간으로서 옥내에 계획되었으며, 또한 서양의 주택에서도 영향을 받아 붙박이장이 우리의 주거양식에 도입되어졌다.

붙박이 가구가 아파트에 처음으로 계획된 것은 개명아파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1958년 아파트의 시초로 보는 종암아파트가 세워진 다음해에 세워졌으며 이 당시 수납공간으로는 각각의 침실에 의류·침구용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었고 발코니에 창고가 설치되어졌다.

1962년에 세워진 마포아파트는 5가지 유형의 평면계획으로 구성된 최초의 아파트단지이다. 평면계획에 있어서 부엌과 욕실을 한군데로 집중시켜 설비비를 절감시켰고 수납공간은 침실뿐 아니라 거실공간에도 설치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도시 영세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운동, 동숭동 등지에 많은 시민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11평의 작은 주거공간이므로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았고, 1.2평의 창고가 계획되어져 많은 물품의 수납공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8년에 세워진 인왕아파트의 주거평면을 보면 침실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졌고, 부엌공간 옆에 다용도실을 만들어 부엌공간에 수납하지 못한 물품이나 음식을 수납·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970년대에는 사회가 고도의 산업성장을 추진하여 그 영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므로서 주택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학교, 공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1971년에 서울시가 건립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현대적인 평면계획, 중앙집중난방등의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붙박이장과 창고가 함께 설치되어져 물품을 수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졌다. 1974년이후에는 민간업체들에 의한 아파트가 활발하게 건설되었고 건설회사간에 경쟁이 생겨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내부에 붙박이 가구 등을 설치하여 실내분위기를 돋보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부분의 아파트 주거공간에 설치되어진 붙박이 가구는 오늘날 아파트의 한 구조물로서 정착되었다. 이러한 붙박이 가구가 아파트 선택시 중요변인으로 작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공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구적이고 안전한 느낌을 가져다 주며 동시에 많은 가구들을 배치함으로서 느끼게되는 시야의 어지러움이 줄어든다는 점(Faulkner R and S Faulkner 1975)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거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는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현대사회의 특징인 이동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붙박이 가구의 선호도 및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본다.

2. 주거의 적응 및 조절행위

가족은 살아가면서 그들의 주택이 문화규범과 일치하는지를 알기위해 자신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주거환경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평가를 시도한다(Morris and Winter 1975). 즉, 가족은 주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반응을 Morris and Winter(1978)는 주거적응과 조절(housing adaptation and adjustment)이라 하였는데, 이는 소유한 주택과 원하는 주택사이에서 생기는 불일치를 조절하기 위한 일련의 심적 자세와 행동을 말한다.

주거적응은 주거환경에 대한 가족반응의 변화로서 규범적 적응과 구조적 적응으로 구분된다. 규범적 적응이란 자신의 주택에 대한 규범을 낮

추어 결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심리적 노력을 말하며, 구조적 적응이란 가족구성을 변화시키거나 가족구성원간의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서 주택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을 말한다. 주거조절은 주거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주거이동과 주거개조 및 증축이 이에 속한다.

Stewart and Mckown(1977)은 주택변화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이 가장의 연령이라고 하였다. 연령이 많은 가장일수록 주택변경을 적게 하는데, 이는 노년층에 있어 주택이란 가장 안전한 은신처이므로 이 환경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Stewart(1973)는 수입이 주거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하였고, Guthrie(1980)와 오찬옥(1983)의 연구결과에서도 수입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질 낮은 주택에서 살고 있기때문에 주택에 대한 갈망이 높아 주거이동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Guthrie(1980)는 한 주택에 오래 거주한 가족일수록 이동보다는 개조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오찬옥(1983)의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택개조행위를 더 하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변화, 주거욕구의 변화, 주택성능의 변화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주택을 개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찬옥(1983)의 연구와 윤복자외 2인(1985)의 연구에서 아파트거주자가 단독주택거주자보다 주택을 개조하거나 시설물을 교환, 첨가하는 행위가 적게 나타나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주택개조행위가 달라짐을 밝혔다.

Morris and Winter(1978)는 주거개조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를 두가지 관점에서 보았다. 즉, 주거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개조하거나, 이미 만족하고 있더라도 이사하기를 원치않고 가족규범이 상승됨에 따라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거행위는 그림 1과 같이 다섯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주거결핍을 느끼더라도 많은 방해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주거이동이나 개조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개조행위를 실제로 취했다는 것은 그 과정동안에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장애를 넘고 이루어진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개조행위는 주거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 구 방 법

본조사는 1987년 3월19일부터 3월3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파트 붙박이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모집단으로 하였고, 연령층을 다양하게 표집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재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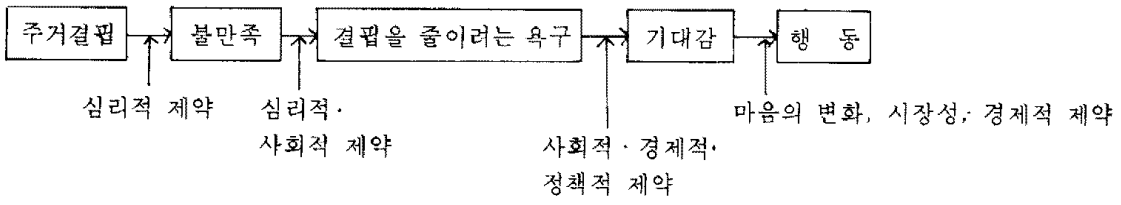

그림 1. 주거행위의 다섯단계

주2) Nachmias, David & Chava Nachmias,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1. pp431-439

법은 군집무선표집(cluster and random Sampling)[4]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507부를 배부하여 400부(78.9%)를 회수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사용가능한 설문지 363부(90.8%)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조사에 사용된 문항중 현재 사용하는 각 붙박이 가구의 만족도에 관한 12문항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Cronbach의 alpha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89에서 .91로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 붙박이 가구의 개조행위 분포

붙박이 가구 \ 분포 / 사용행위		f	%
거 실 장	그대로 사용	217	66.4
	수리 · 개조해서 사용	56	17.1
	새로 구입해서 사용	54	16.5
	계	327*	100.0
부 엌 장	그대로 사용	222	62.2
	수리 · 개조해서 사용	64	17.9
	새로 구입해서 사용	71	19.9
	계	357*	100.0
신 발 장	그대로 사용	258	74.6
	수리개조해서 사용	59	17.0
	새로 구입해서 사용	29	8.4
	계	346*	100.0
욕 실 장	그대로 사용	238	74.5
	수리 · 개조해서 사용	38	11.8
	새로 구입해서 사용	44	13.7
	계	321*	100.0

* 붙박이 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계가 일치하지 않음.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거배경은 다음과 같다.

1)사회인구학적 배경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주부의 연령은 30대(36.1%)와 40대(60.1%)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를 표집대상으로 한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본다.

주부의 교육정도는 대학교졸업이 54.8%, 고등학교졸업이 34.4%, 중학교졸업이 5.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80만원~100만원미만이 22.2%로 가장 많았고, 60만원~80만원미만과 100만원~120만원미만이 각각 17.4%로 그 다음이었고, 40만원~60만원미만이 14.6%로 그 다음 순이었다.

주부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18.5%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주거배경

주거변인으로는 주택소유형태, 주거면적,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85.9%, 전세13.2%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한 가족들이 임차가족에 비해 훨씬 많았다. 주거면적은 30평미만이 36.2%로 가장 많았고, 30평~40평미만이 30.9%, 그리고 40평~50평미만이 18.5%, 50평~60평미만이 10.8%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년이상이 24.0%로 가장 많았고 1년미만이 18.7%, 1년~2년미만이 17.1%, 2년~3년미만이 16.3%, 3년~4년미만이 15.4%, 4년~5년미만이 8.5%로 나타났다.

표 4-2. 붙박이 가구의 개조동기 조사분포

붙박이 가구 / 붙박이가구 개조동기 / 분포		거실장		부엌장		신발장		욕실장	
		f	%	f	%	f	%	f	%
1	물건정리에 불편	41	20.7	38	14.4	16	12.2	28	19.6
2	위치의 부적합	20	10.1	20	7.6	7	5.3	16	11.1
3	높이의 부적합	10	5.1	12	4.6	16	12.2	6	4.2
4	깊이의 부적합	5	2.5	7	2.7	9	6.9	9	6.3
5	폭의 부적합	3	1.5	4	1.5	1	0.8	4	2.8
6	수납공간 부족	16	8.1	46	17.5	18	13.7	27	18.9
7	재료의 비견고성	10	5.1	24	9.1	8	6.1	10	7.0
8	부속품의 비견고성	11	5.6	26	9.9	10	7.6	6	4.2
9	청소의 문제	4	2.0	6	2.3	2	1.5	2	1.4
10	색·디자인의 불만	34	17.2	42	16.0	23	17.6	18	12.6
11	전체적인 조화	28	14.0	34	12.9	15	11.5	12	8.4
12	독창성의 결여	16	8.1	4	1.5	6	4.6	5	3.5
계		198	100.0	263	100.0	121	100.0	143	100.0

표 4-3. 붙박이 가구의 필요성

붙박이 가구 / 필요성 / 분포		f	%
거 실 장	꼭 필 요 함	221	62.3
	별상관없음	94	26.5
	불필요함	40	11.2
	계	355	100.0
부 엌 장	꼭 필 요 함	345	96.1
	별상관없음	12	3.3
	불 필 요 함	2	.6
	계	359	100.0
신 발 장	꼭 필 요 함	337	93.1
	별상관없음	21	5.8
	불 필 요 함	4	1.1
	계	362	100.0
욕 실 장	꼭 필 요 함	302	84.8
	별상관없음	50	14.1
	불 필 요 함	4	1.1
	계	356	100.0

2. 조사대상자의 붙박이 가구 사용실태

1)각 붙박이 가구의 개조행위

본 연구에서는 붙박이 가구를 거실장, 부엌장, 신발장, 욕실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네 가지 붙박이 가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1 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62~75%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조한 경우는 12~18%,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8~20%로 나타났다. 수리, 개조 혹은 새로 구입한 분포를 보면 거실장 33.6% 부엌장 37.8%, 신발장 25.4%, 욕실장 25.5%로 나타나 부엌장, 거실장, 욕실장, 신발장 순으로 수리·개조 또는 새로 구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붙박이 가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함께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 또는 구입행위가 25~38%정도로 높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이는 "한국 부엌의

표 4-4 붙박이 가구 사용계획에 대한 조사분포

붙박이 가구 / 사용계획	거실장		부엌장		신발장		욕실장	
	f	%	f	%	f	%	f	%
현재 사용중인 것이 불편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겠다.	77	41.8	64	35.8	91	43.1	67	34.1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개조나 새로 구입할 계획은 없다.	49	26.6	49	27.4	63	29.9	65	33.2
현재 사용중인 것을 수리·개조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10	5.4	13	7.3	24	11.4	19	9.7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바꿀 계획이다.	48	26.2	53	29.5	33	15.6	45	23.0
계	184	100.0	179	100.0	211	100.0	196	100.0

작업대와 수납장의 표준칫수설정을 위한 연구III"(1986)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아파트공급자측에서 제공하는 가구가 질적인 면에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 아파트 붙박이 가구의 개조동기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반이나 칸막이 등이 물건을 정리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조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조동기를 각 붙박이 가구별로 보면 거실장은 물건정리상의 문제(20.7%)와 색·디자인상의 문제(17.2%) 그리고 실내와의 조화(14.0%)가 개조의 주요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장은 수납공간의 부족(17.5%)과 색·디자인상의 문제(16.0%)그리고 물건정리상의 불편(14.4%)이 개조나 새로 구입한 주요동기임을 알 수 있었다. 신발장은 색·디자인상의 문제(17.6%)와 수납공간부족(13.7%), 물건정리의 불편(12.2%), 높이의 부적합(12.2%)이, 그리고 욕실장은 물건정리상의 문제(19.6%)와 수납공간부족(18.9%)이 개조의 주요동기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 붙박이 가구의 개조동기는 물건정리상의 불편함, 색·디자인상의 문제, 수납공간부족이 주요 개조동기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위치·높이·깊이·폭의 부적합한 문제와 함께 고려해 보면 붙박이 가구의 기능상의 문제와 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붙박이 가구의 필요성

아파트 붙박이 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각 가구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3 과 같다.

거실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80%이상이 붙박이 가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성기(1974)의 연구에서 나타난 40.6%, 김용환(1983)의 연구에서 나타난 6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의 차이점은 붙박이 가구에 대한 필요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현대인의 잦은 주거이동으로 인해 점차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붙박이 가구의 필요

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다른 붙박이 가구에 비해 거실장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낮게 인식된 것은 거실공간이 아파트 공간중 가장 사회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붙박이 가구보다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붙박이 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붙박이 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표 IV-4 와 같이 조사대상자중 34~43%는 현재 사용중인 붙박이 가구가 불편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 27~33%, 앞으로 개조해서 사용할 계획이 5~11%,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바꿀 계획이 16~26%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중인 붙박이 가구가 불편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주부는 현재의 붙박이 가구가 주부의 기대수준에 가까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주부들은 붙박이 가구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춤으로써 주거환경에 적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개조하거나 혹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바꾸겠다는 반응을 보인 주부들은 주거환경에서 생기는 불만족을 없애고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상승하려 하거나, 현재 만족하고 있으나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25~39%는 붙박이 가구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27~37%가 앞으로 개조할 의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붙박이 가구가 건축적으로 고정된 것이여서 변화가능성이 낮은 시설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비교적 높은 개조율과 개조계획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 가구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며, 거주자들이 붙박이 가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붙박이 가구의 개조동기는 물건정리상의 불편함, 색·디자인상의 문제, 수납공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붙박이 가구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수납가구에 대한 개조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동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 붙박이 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80%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붙박이 가구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현대사회의 이동성과 관련된 새로운 생활양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아파트 붙박이 가구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파트 주거공간내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다양한 취향과 생활유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방,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 다양한 붙박이 가구가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붙박이 가구의 내용을 조사하여 개조내용정도별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1) 강병기 : 다양해야 할 아파트단지. 주택 47호 : 41-48, 1986
2) 김규태 : 아파트가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구, 13호, 1987
3) 김성곤 : 공동주택의 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연구. 주택, 43호 : 141-158, 1982

1) 김성문 : 주거환경, 주택, 37호 : 86-91, 1978
2) 김용환 :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illegible] 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3
6) 김일진 : 주거계획에 있어서 수납장소에 대한 고찰 : 주로 반침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논문집, 제5집 : 193-202, 1971
7) 김효순 : 아파트 가구와 디자인, 가구, 13호, 18-19, 1987
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아파트실태조사(서울지구), 대한주택공사, 1970
9) 오찬옥 :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물리적 환경변인과 주거적응 행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10) 윤복자, 지순, 이연숙 : 한국부엌의 작업대와 수납장의 표준칫수 설정을 위한 연구III : 소비자의식 및 반응조사와 실측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985
11) 이인희 : 우리나라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75
12) 조성기 :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권, 56호 : 25-30
13) Bach, Robert and Smith, Joel : Community Satisfaction, Expectations of Moving and Migration. *Demography* Vol. 14, No. 2 : 147-167, 1977
14) Frankel, Virginia : The Incredible, Wonderful, Flexible World of *Built-In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77
15) Guthrie, Lou Ann : Housing Adjustment Behavio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41, No. 12 : 4480-B, 1980
16) McCray, J. W. : A Comparison of Housing Values, Aspirations and Satisfactions of Low-Income Rural Florida Residents and Urban Tallahasee Public Housing Tenants Residents and Urban Tallahasee Public Housing Tena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36, No. 2 : 3894-B, 1975
17) Morris, Earl, W. and Mary Winter :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and Sons, 1978
18) Peter, M. Gladhart : Family Housing Adjustment and the Theory of Residential Mobility : A Temporal Analysis of Family Residential Historie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24, 1972
19) Stewart, Karen Key : The Discrepancy between Desired and Actural Housing and the Decision to Move into A Specific Subsidized Housing Projec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34, No. 11 : 5548-B, 1973
20) Whiton, Sherrill : *Interior Design and Decoration (4 th ed.)*, J.B. Lippincott Company, 1974